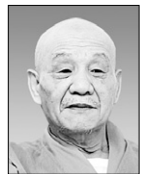


일주문



DMZ 평화상 대상 수상 오현 스님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이사장 오현 스님은 DMZ 평화상 제5회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추모 다례 및 사리탑 제막식
화제사 주지 수경 스님은 12월 4일 오전 11시 화계사 대적광전에서 승산 스님 5주기 추모다례 및 사리탑제막식을 봉행한다.



월정사 상보일배 대정진 입재
월정사 주지 정년 스님은 12월 31일부터 2010년 1월 1일 월정사-상원사 구간에서 송구영신 삼보일배 대정진을 봉행한다.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능인 스님은 오는 12월 9일 오후 1시 진천을 화랑관에서 석가산 대종사 종정 추대식을 봉행한다.



사천 선원사 현판식
강화 선원사 주지 성원 스님은 12월 5일 경남 사천에 연꽃 홍보사찰인 선원사 사천 분원 현판식을 거행한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새재교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상덕 스님은 겨울방학 동안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 및 논술 등을 교육하는 새재교실을 개최한다.



통일문화대상 수상
민병천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11월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아카데미홀에서 통일문화연구원 주최하는 '제5회 통일문화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시조아카데미 겨울학기 개강
홍성란 시조시인은 12월 7일~2월 22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유심> 세미나실에서 '시조 아카데미' 겨울강좌를 개최한다.



신지식인 문화예술 부문 최우수상
진산 정지완 작가는 (사)한국신지식인협회(회장 최세규)가 주최하는 제14회 대한민국 신지식인 문화예술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화축

배재수 불교방송 기자는 12월 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영등포 문화웨딩홀 2층 러블리하우스홀에서 신부 박혜윤씨와 화축을 밝힌다.

“다른 것 인정하는 곳이 불국토”

美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 박성배 교수 학술강연



박성배 교수

“어린이는 자기와 다른 것을 보면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른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중생심(衆生心)입니다.”
재미 원로 불교학자인 박성배 교수(美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75세)는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이사장 정해숙)가 11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청화대종사 불교사상 학술강연회에서 강연했다.

박 교수는 주제강연 ‘몸과 물질의 논리로 본 청화 스님의 불교사상’을 자신의 미국생활에 대한 회고로 시작했다.

“40여 년을 미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인종차별을 크게 느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역시 대통령 당선 후에도 이 차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 개혁을 반대하는 미국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태이다.

박성배 교수는 미국 내 언론을 인용해 “오바마가 현재의 위기에 봉착한 것은 그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대통령조차 차

별을 겪고 있는 현실은 자기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중생의 근본적인 결함 탓”이라고 설명했다.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무차별’에 관한 집착도 그릇된 중생심입니다. 무차별한 곳이 불국토라 생각하는 것도 한 큰 잘못이지요. 자기와 다른 이가 더 불어 사는 세상 그곳이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차별없는 세상은 어떨까? 박성배 교수는 미국의 부호인

록펠러가 건축·기부한 한 병원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1600 병상의 대형 병원이 지어졌는데 건물 안에서 길을 잃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유는 건물 구조가 차별 없이 모두 똑같아서였어요.”

박 교수는 사람을 차별 없게 강요하는 그릇된 것으로 지식을 꼽았다.

“지식은 인간에게 산 것과 죽은 것의 구별을 사라지게 합니다. 종교에 관한 지식만 갖고서 자신이 성자(聖者)라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박성배 교수는 “청화 스님은 당시 보편적이던 간화선 수행법을 떠나 열불선으로 차별을 실천한 선지식이었다”면서 “부처님도 모두가 바라문의 길을 가던 무차별에서 벗어나 차별의 벽을 넘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강조했다.

“다른 것이 새로운 것과 창조적 시작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실상입니다.”

이날 1시간 여 강연 동안 고회를 넘긴 원로 교수는 곳곳이 서서 말했다. 박성배 교수의 한국불교에 대한 숭고한 열정과 사랑은 12월 2일 그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27일 동국대BK21사업단, 30일 광주 전남대 특별강연에서도 이어졌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불교의례 통해 공동체 의식 회복

불교생활의례 문화원 배관성 초대 이사장 임명



배관성씨

“향후 2천만 불자 모두가 불교식 생활의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11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원식을 개최하고 배관성 이사장(동대문 케레스타 대표이사)을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배관성 초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의욕과 단합된 힘으로 생활포교의 전법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불자들의 생활의례를 유교적 생활의례에서 불교적인 것으로 전환시켜나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배 이사장은 “불교상제 봉사자 양성교육과 전문과 과정 교육 등의 인성교육을 통해 대사회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앞으로 불교생활의례를 복원해 전통문화로서의 제 자리를 확고히 찾고, 불교의례를 통한 공동체 의식 회복에 앞장선다. 배관성 이사장은 “생활의례 봉사단을 결성해 일반 불자들이나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 가정, 이주노동자 등의 생활의례와

관련한 고충 및 민원해결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활의례봉사단은 2010년 3월부터 본격적인 대사회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문화원은 또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불교식 관공상제의 보급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할 방침이다. 배관성 이사장은 “연구소는 범불교적

인 생활의례의 매뉴얼 작업과 불교의례에서 잘 드러나 있지 않은 성년식, 돌, 칠·팔순 잔치를 비롯한 영아 수계 등의 깊이 있는 연구를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2007년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원장 엄상호)에서 주관한 ‘장래산업의 동향과 불교 장래산업의 현재’에 대한 정책포럼을 시작으로 2009년 4월 발기인 153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에는 제1기 불교상제 전문지도사과정 교육생들이 고무문 전 대통령 국민당, 8월 故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사무국은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2층에 위치해 있다. (02)720-1079 이상연 기자

中, 달라이 라마 방한 반대 압력

취임 첫 여방에 ‘결레’, 지승 스님 ‘상황 고려 판단’

중국불교협회가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달라이라마 방한 반대 압력을 행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중국종교평화위원회(CCRP) 대표단 도술인 부단장(刀述仁·중국 불교협회 부회장)은 11월 26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을 예방, “달라이 라마가 한국을 방문한다면 한중불교계의 우호에 해로운 것”이라는 엄포성 발언을 내뱉었다.

이날 자리는 앞선 19일 한국종교인 평화회의(KCRP)의 중국종교평화위원회(CCRP) 초청 방한일정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됐으며, 제33대 총무원장 지승 스님의 취임 축하여방도 겸해 이뤄졌다.

당초 여방 행사는 중국종교평화위원회 부선위 단장(중국종교평화위원회 부주석, 중국기독교삼자애국회 주석)



총무원장 지승 스님(왼쪽에서 세번째)과 부선위 단장(네번째), 도술인 부단장(오른쪽 끝)

의 취임 축하 인사와 총무원장 지승 스님의 축하 축전에 대한 감사, 중국불교계의 현황과 한중불교교류대회의 지속 방안 등이 논의됐다.

총무원장 지승 스님은 “달라이 라마를 공식 초청한 바 없으며 방한과 관련해 공식 접수된 것도 없다”고 짧게 답했다. 지승 스님은 이어 “중단은 전과 같이 한중불교 관계를 우선으로 여기고 있고, (방한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력한 기자

‘동산인의 밤’ 발전기금 마련전시회 열어

20일, 동산불교대학 창립 27주년 기념 법회

신행·교육·포교 전문도량 동산반야회·동산불교대학(이사장 안동일)은 11월 20일 창립 27주년 기념 법회 및 동산인의 밤을 개최하고 발전기금 마련전시회를 함께 열었다.

이날 전시회에는 동산반야회의 초대 이사장인 김재일 법사의 애장품 50여 점과 이항녕 박사전 홍익대 총장)의 불교 소장품 50여점이 전시됐다.

또 석주 스님, 만보 스님, 윤보 김기장, 최규일 회백의 작품, 김재일 이사장이 네팔에서 모셔온 만다라와 부처님 일대기를 그린 작품 및 소장품 등을 함께 전시해 발전기금을 쾌척했다.



동산불교대학 창립 27주년을 기념한 발전기금 전시회의 테이프 컷팅 장면. 오른쪽 네번째부터 법산 스님, 무진장 스님, 안동일 이사장

동산불교대학 안동일 이사장은 기념법회에서 “단순히 동산발전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보다 이항녕 박사와 몸과 마음을 바쳐 불교를 위해 정진했던 김재일 이사장의 정신을 본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일 이사장은 기념법회에서 이번 전시회에 소장품을 기증한 이항녕 박사의 아들 이재후 변호사와 발전기금 장학금을 전달한 조중건 화암학술연구원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일면 스님(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법타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법현 스님(태고종 총무원 부원장), 박윤현(전 환경부 장관), 정기호(전 대법관), 김종규(삼성출판박물관장), 조중건(전 화암학술연구원 이사장), 엄상호(불교인재개발원 이사장), 이재후(김안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상연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창종 2주년 대법회

모시는 말씀

삼보에 귀의 하옵고

존경하는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종도 및 사부대중 여러분 광대무변한 불법 광명과 계보보살님의 대자비심으로 불은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종단은 창종과 더불어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말씀에 따라 생활속에서 불법을 널리 흥포하며 불국정토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창종 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징에하 큰스님 부중정큰스님 장로원장님 각 부원장큰스님 여러 대덕큰스님들을 모시고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창종 2주년 법회를 봉행코저 하오니 사중(寺中)에 바쁘신 일이 있으시더라도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기 2553년 11월 24일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총무원장 혜상 합장

- 일시 : 불기 2553년 (서기 2009년) 12월 12일 토요일(음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장소 : 화엄조계종 총무원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문의 : 총무원 054)632-2799 / 핸드폰 011-228-7813

▷ 입종안내 ◁

맑고 투명한 종단 대한불교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흥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종도들을 모집합니다.